

‘사건의 지평선’에 선 韓경제… ‘회복탄력성’ 키워야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 넘어 미래로**

5%대 고물가, 美 금리인상 등 여파
올해 '1%대 저성장' 본격화 예고
불황 늪 탈피 위해 회복힘 길러야

많은 것을 잃었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계묘년 새 해를 맞았다.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될 것이란 우려 속에도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스며든다. 가수 윤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지난 연말부터 역주행하고 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를 뜻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이다. 한국 경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고 있다. 어찌할 수 없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끌려가다 블랙홀의 경계면에 들어서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힐 수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뤄왔던 성장의 결실은 잊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비, 규제를 혁파하고 연금·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다. 메트로경제는 2023 '계묘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작년 11월 21일, 서울 홍릉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우리나라 경제
를 이끌었던 부총리·장관 등 역대 수장
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0년간 대한민국은 ‘쓰

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눈부
지게 성장한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가
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뉴노멀) 시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보다 0.9%포인트 내린 1.6%로 제시했다.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성장을 전망치를 올려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1%대 전망치는 그만큼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등 단 네 차례 뿐이다.

올해 경제 상황도 위기라 칭할만큼
녹록치 않다.

5%대 고물가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 양극화, 고용 악화, 수출 약세 등 악재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지난 6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계묘년, 희망찬 도약 날개

계묘년, 희망찬 도약 날개 '2023 계묘년(癸卯年)'을 밝히는 동이 났다. 그 어떤 때보다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저 멀리 비행기 한 대는 여명을 향해 세차게 비상한다. '인간이 하늘을 날 거라'는 말을 비웃던 이들을 뒤로 한 채, 포기하지 않고 하늘 길을 개척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새해 첫날, 주어진 삶의 몫을 해내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우리에게 일상도, 경제도 올 한해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기를 바란다.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3대 개혁 속도… 노동개혁 통해 성장 견인”

尹 대통령 신년사

“복합의 위기, 수출로 돌파해야
우주항공 등 신사업 발굴·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복합위기를 수출 등 경제 활성화로 극복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수출과 미래 전략기술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돌과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해외수출 500억불 프로젝트’를 기동함으로써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 확대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고,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행한다.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